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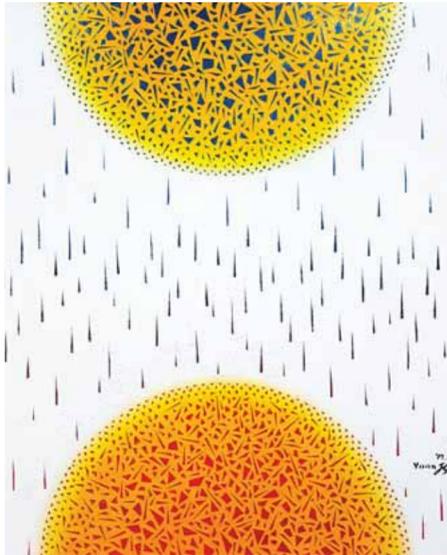
# 청년작가들 힘 내세요... 아름다운 후원전



김성결 작 '현대인의 자화상'

익명의 기업가 대관료 지원  
후원자가 직접 작가 4명 선정  
작품 구입 의향도 밝혀

내달 16일까지 갤러리D  
실험정신 빼어난 30점 선봬



윤준성 작 '원으로 부터'

에단 호크와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을 맡은 영화 '위대한 유산'(1998)은 가난한 집안형편이지만 화가가 꿈인 주인공이 익명의 후원자를 만나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작품활동을 하는 지역 청년작가들에게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다. 익명의 40대 남성 기업가가 그동안 눈여겨 본 청년작가 후원에 나섰다. 갤러리 D에서 '기업인이 추천하는 신진작가 초대전-거침없이 아름답게'가 3월16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는 한 미술컬러트 겸 지역 기업인이 청년작가들을 직접 선정해 전시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로, 김성결·김연호·윤준성·조주희 등 20~30대 작가 4명이 참여한다.

지난해 5월 우연히 김연호·윤준성·조주희 작가가 참여한 화순 다산미술관에서 열린 단체전을 관람했던 후원자는 이후

작가들에게 먼저 연락을 했다. 후원자는 한달간 전시를 열어보자는 의사를 밝히며 1주일 약 100만원 상당 대관료를 한달분 지원하고, 작품 구입 의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작가들은 조선대 미술대학 출신이라는 걸 제외하면 서로 친밀한 관계이거나 공통점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순전히 후원자 덕분에 한자리에 전시를 열게 됐다.

김연호 작가는 "지난해 한 광주 기업인께서 청년작가들이 소심하게 작품활동을 하는 게 마음 아프시라며 전시비용을 지원하겠다고 연락하셨다"며 "그동안 작가들과 함께 몇차례 만남을 가지며 전시장소와 주제를 고민하는 등 여러모로 도움을 주셨다"고 설명했다.

김성결 작가에게 후원자와 남다른 인연이 있다. 첫 작품 구매자였던 것.

김 작가는 "약 3년 전 학교를 졸업하고 작가 길을 걸으며 힘든 시기였을 때 모

는 분이 처음으로 작품을 구매해주셨다"며 "가끔 식사를 같이하며 격려도 해주시고 이번 전시까지 함께하자고 연락을 하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갤러리를 방문하면 왜 후원자가 4명의 작가들을 주목했는지 알 수 있다. 각자 독특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실험정신이 강한 작품 30점을 만날 수 있다.

김성결 작가는 '현대인의 자화상' 연작을 통해 현대를 살아가면서 억압당하는 내면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꿈틀거리는 형상과 감정의 분출을 어두운 색감과 거친 붓 터치로 형상화시켰다.

불안의 치유를 위한 꿈속 형상들을 그리는 김연호 작가는 '꿈(夢)' 연작을 출품한다. 풀벌레 소리 가득한 여름 저녁 풍경과 따뜻한 불빛이 켜진 환하고 안락한 집 등 동화적 세계를 구현해 유년 시절부터 자신을 둘러싼 불안정함과 상처들을 치유

한다. 윤준성 작가는 조화와 분열을 반복하는 인간관계와 사회 모습을 작품에 담았다. 작품 '원으로 부터'는 파편처럼 영겨있는 조각과 동그랗게 모인 원들을 통해 인간 관계처럼 조화롭게 뭉치거나 무질서하게 흩어지는 모습을 반영한다.

그밖에 조주희 작가는 신령한 소재인 호랑이와 길(吉)과 복(福)의 문양을 작품에 담아낸다. 백호가 위엄있게 앉아있는 작품 '기운'은 세밀한 묘사가 특징으로 무한한 기운과 힘을 표현했다.

작가들은 이번 전시를 계기로 더욱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었다.

김성결 작가는 "이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신진작가들에게는 격려와 작품 한점 판매가 큰 힘이 된다"며 "도움을 받은 만큼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더욱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062 222 8011. /김용희기자 kimyh@

## 항상 고마운 나무... 노은희 개인전



'나무 옷'

### 4월 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노은희 조선대 디자인학부 교수에게 '나무'는 생명과 평화를 상징하는 존재다. 소설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나오듯 산소, 그늘, 가구·집 재료를 제공하며 인간과 떼어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인간들은 나무를 베기만 할 뿐이다.

노 교수가 5년 만에 나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개인전을 연다. 23일부터 4월20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업사이클링(Upcycling) 노은희'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신문지, 현수막, 부직포 등 폐기물을 재활용해 나무를 표현한 조형·설치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신문지와 목재로 나무형상을 만들고 뜨개질로 옷을 만들어 입힌 높이 2m 크기 '나무 옷'은 나무에 대한 소중함을 전

해준다. 또 현수막과 부직포를 자르고 바느질해 나무를 만든 '나무가 되었습니다'(가로 20×세로 30cm) 연작을 만날 수 있다.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문양을 활용해 별도 채색 없이도 알록달록한 색상을 표현했다.

그밖에 한지와 대나무를 활용해 만든 '원이 된 대나무', '초록 대나무' 등 나무의 다양한 모습을 표현한 최근작들도 출품했다.

노씨는 조선대 응용미술과·대학원, 홍익대 대학원 미술비평전공을 졸업하고 한국 산업디자인전람회 산업자원부 장관상, 한국미술대전 우수상, 일본 현대금립지전 입상 등 다수 상을 받았다. 광주·전남디자인협회 이사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 한국섬유미술가회 회장을 역임했다. 문의 062-223-667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광주시립미술관·남도문화재단 전국 청년작가 공모전

### 총상금 5000만원 규모

광주시립미술관과 남도문화재단(이사장 조정환)이 전국 청년작가를 대상으로 총상금 5000만원 규모 '2017 전국 청년작가 미술공모전'을 공동 주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 건설사 대표를 맡고 있는 조정환 이사장이 메세나 운동의 일환으로 청년작가 발굴·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공모분야는 한국화·서양화 등 평면회화이며, 응모자격은 3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자이다. 만 28세~45세 이하 작가라면 공모주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출품작은 50~100호 내의 작품으로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한다. 응모는 3월 2일까지 남도문화재단 홈페이지(namdoc.or.kr)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수상자는 2단계에 걸쳐 선정한다. 7명을 1차 선정해 서울 G&J갤러리에서 4월 중 2주간 단체전을 연 후 최종심사와 시상식을 진행한다. 1차 선정 발표는 오는 3월중 홈페이지 공지와 개별 연락을 통해 통보한다.

최종 선정자는 대상 1명(상금 3000만원·작품구입비 포함), 우수상 1명(상금 1000만원), 선정작가상 5명(각 상금 200만원)이다. 대상에게는 내년 서울 G&J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지원한다. 문의 062-463-0840. /김용희기자 kimyh@

## 문화재청 웹툰 '물상객주' 후속편 연재 6월 1일까지 매주 목요일

문화재청은 지난해에 이어 우리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장편(15부작) 웹툰 '물상객주, 사라진 보물을 찾아서'를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5주간 매주 목요일에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연재한다.

'물상객주, 사라진 보물을 찾아서'는 지난해 연재한 '물상객주' 후속편이다. 전편 주인공 '김학수'의 어린 제자 '해원'이 '권관 이상복'을 도와 한양에 거주에서 벌어지는 암거래 속에서 호승 중 잃어버린 보물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조선 후기 혼란스러운 정세를 틈타 해외로 반출될 위기에 빠진 우리 문화재들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통해 문화유산의 가치와 소중함을 전해준다. 또 이야기 속에 나오는 역사적 장소나 유서 깊은 유물 등을 소개해 유익함을 더한다.

연재 기간 댓글로 소감을 남긴 우수 독자에게는 모바일 기프티콘(250명), 휴대용 LED 스탠드(200명) 사은품을 제공하는 특별한 이벤트도 펼친다. 웹툰은 어린이·청소년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과 문



화재청 모바일 웹에서 만날 수 있다. EBS홈페이지와 모바일웹에서도 동시 연재한다. /김용희기자 kimyh@

### M갤러리 대관안내

- ▶ 기본대관기간 : 7일(일주일 단위)
- ▶ 실 전시 벽면 길이 : 약 46 M
- ▶ 개관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 10:00~17:00
- ▶ 신청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http://jinhan-shona.blog.me>

### 아프리카 쇼나조각

아프리카 전시회

- 500여점 전시 -

■ 장소: 세계조각·장식 박물관 상설전시관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아름다운 추억이 머무는 곳

자연이 아름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더 아름답습니다. 백양관광호텔로 오십시오.

Beautiful Baeg Yang Hotel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외식사업부
- 교회 행사 전문 호텔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